

金東里 小說의 죽음과 救援問題

—巫女圖, 等身佛, 사반의 十字架를 中心으로—

崔 來 沃*

- | | |
|-------------------|------------|
| I. 序 論 | 4. 인물 성격 |
| II. 本 論 | 5. 죽음의 과정 |
| 1. 소재와 작품 전개 | 6. 救援의 樣相 |
| 2. “나”의 意味 | 7. 意識上的 要素 |
| 3. 배경과 분위기와 현실 요소 | III. 結 論 |

I. 序 論

本稿는 韓國의 叙事文學에서 죽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한 作業의 하나이다. 說話와 古代小說과 現代小說 속에 있는 죽음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문제이며 쉽사리 핵심이 잡히지 아니하여서, 그 具體的인 實證作業의 必要를 느끼고 現代小說을 다루게 되었다. 많은 現代小說과 作家 中에서 어느 소설 어느 작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죽음에 대하여 자기 哲學을 갖고 文學으로 表現하고 있는 金東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필자는 이보다 앞서 黃順元의 “소나기”의 構造와 意味를 고찰한 바 있는데(국어교육 31집 1977. 7. 12) 앞으로 土俗性이 강한 一群의 作家에서 한국적인 죽음 문제를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說話와 古代小說과 脈絡을 지으려는 下限作業이며 古典을 위한 補助研究의 性格을 띤다. 그러므로 方法論에서도 筆者 나름의 分析方法을 적용하게 되었다. 수많은 說話를 整理하고 分析하는 過程에서 얻은 構造分析과 그 意味 抽出方法이므로 그 普遍性에 대하여는 현재 斷言하기 어려우나 試圖하였다.

金東里 小說을 전체적인 검토에서 출발할 때 그의 전체 작품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金東里 自身이 분류한 것을 筆者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文理科大學(대전) 國語國文學科 教授

1) 金東里 代表作 自選自評~巫女圖, 其他論(文學思想 창간호 1972. 10월호, p. 264)

이밖에 金東里의 作品의 분류는 작자와 評著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金東里: 1958년 간행된 그의 작품집 “實存舞”의 작자후기에서

1. 사랑과 운명의 문제를 다룬 작품
2. 민족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
3. 신과 인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
 - ㄱ. 샤마니즘 계열~巫女圖, 달, 당고개무당, 허딜풀네
 - ㄴ. 불교 계열 ~佛畫(原題 率居), 等身佛, 極樂鳥, 눈오는 午後, 까치 소리
 - ㄷ. 기독교 계열 ~마리아 懷胎, 木工요셉, 復活, 사반의 十字架

마지막 세계 계열인 신과 인간의 문제는 결국 종교와 철학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로서는 샤마니즘(土俗的)과, 佛敎과 기독교의 3 종교를 들고 있다. 이 方面에 손을 댄 이유로 그의 人生觀과 文學觀이 결부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²⁾.

예1 나는 어려서부터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전율을 느껴 왔다. 이 공포와 전율은 내자신의 그림자와 같이 절요하게 지금도 내 뒤를 쫓고 있다네.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진작부터 사람의 사는 일과 죽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 생각은 물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지(天地)의 시작과 끝이라든가, 존재(存在)의 근본이라든가 하는 따위로 번지게 됐지만. 이러한 관심과 습성은 자연히 철학 쪽으로 기울게 하여, 처음엔 내 백씨(金凡夫先生)의 철학 서적을 꽤 많이 훑쳐 읽게 만들었지만, 너무 일찍부터 내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결국 철학 아닌 문학 쪽으로 흐르게 만들었다고 보네.

예2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전율은 사람의 생명이 오는 곳과 가는 곳, 천지의 근원 따위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관심을 갖게 만들었거든. 이러한 형이상학적 관심으로써 나는 문학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네. 그 결과 유럽 사람의 근대 문학 속에 흐르고 있는 신과 인간과의 문제와 세기말(世紀末)이란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와 박히게 되었어.

위 인용을 보면<죽음→공포·전율→인간생명의 불가피→근본 형이상학적 문제화→철학 아닌 문학 선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죽는다”는 절대적인 진실 앞에 두 가지 질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하나는 결국 인간은 무엇이나 하는 人間의 究竟의 해결문제와, 이 죽음을 해결하고 救援하는 神을 찾는 문제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역사적 현실을 다룬 작품(계열)~실존무, 蜜茶苑時代, 狂風속에서, 殺伐한 黃昏
 2. 인간성의 실험을 다룬 작품~靑磁, 아들 三兄弟
 3. 향토적 정조(詩情系)를 다룬 작품~驛馬, 진달래
 4. 역사 소설 계열~旅愁, 龍, 木工요셉
- ④ 白承喆: 金東里의 文學世界(蜜茶苑時代, 三中堂文庫 272, 解說 p. 308)에서
1. 샤아머니즘의 세계~巫女圖, 黃土記, 驛馬, 山水, 바위洞口앞길
 2. 鄉土的 土俗의 美~절레꽃, 穴居部族, 달
 3. 종교적 주제~龍, 等身佛, 木工요셉, 사반의 十字架, 復活, 마리아 懷胎
 4. 현실세계의 고뇌와 생존의 어려움을 다룬 것~蜜茶苑 時代, 實存舞, 興南撤收, 人間動議
- 2) 金 東里: 上揭文

는 새로운 神, 새로운 人間을 찾는 새로운 미래 문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문학의 밑바닥에 어느 정도 또는 짙게 깔려 있다고 金東里는 말한다. 이 죽음의 구원자로서 서양의 기계문명과 과학 그리고 기독교의 神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였기에 서양의 잔재를 붙들거나 모방하기는 너무 허약하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것, 곧 새로운 신과 새로운 인간을 탐구하기 위하여 서양이 아닌 동양으로 눈을 돌리고, 동양하고도 한국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므로 金東里 小說의 세계 계열 작품인 “신과 인간의 문제”는 한국적인 신과 인간을 다루게 된다. 그리하여 샤마니즘 계열은 물론 韓國的이고 土俗的이며, 불교 계열도 한국적이며, 나아가서 기독교 계열도 한국적이다.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종교인 샤마니즘과 불교와 기독교를 동등하게 다루며 이들 전부를 한국적인 옷을 입히고 조명을 비추고, 또는 한국적으로 주무르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金東里가 철저한 한국인이며, 한국적인 것을 찾는 작가이기 때문이요, 그의 개성인 것이다. 어느 작가치고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성이 없으리요마는 金東里는 더욱 그러하기에 여기에 저항이 생긴다. 필자가 결론에서 말할 것을 미리 당겨 단적으로 말한다면 金東里式 샤마니즘, 金東里式 佛敎, 金東里式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이니, 순수 신학적인 종교인으로부터 金東里式 宗教라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小說의 虛構과 小說家의 自由創作性이 문제되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에 論外로 하더라도, 金東里 小說은 인간이 직면한 죽음과 구원에 대하여 다각적인 宗教 觀點에서 너무나 韓國的으로 또는 東洋的으로 예리하게 다루었기에, 그리하여 독자가 대개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발을 하지만, 훌륭한 작품과 문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金東里 小說의 性格이 明快하게 규정된 것 같은데 실은 그의 小說幅이 하도 넓기에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하다. 위의 말은 신과 인간계열 작품들 성격 규정에는 近似할지 모른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의식”, “운명적 현실”³⁾, “슬픔이나 고뇌 또는 절망에 빠진 등장 인물이 인간적인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인간적인 것, 초월적인 것, 숙명론적인 것 이런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불교, 샤마니즘적인 작품에서)”⁴⁾, “허무에 대한 철저한 추구하고 의지”, “허무에 대한 긍정인 동시에 새 출발을 뜻하는 허무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기도 한 것”⁵⁾, “강한 주제와 함께 인간을 탐구”⁶⁾ 등등이 金東里 小說을 단적으로 評한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평을 보더라도 김 동리 소설의 폭넓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필자의 이야기를 하여야겠다. 그 나무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는 중간 부분인 굵은 가지에서 위로 아래로 살펴 보아야 한다. 이처럼 金東里 小說을 알기 위하여 제3계열 “신과 인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에서 각 종교를 다룬 작품 중 하나씩을 골라서 분석 비교하였

3) 李炯基 : 金東里文學의 線欄한 出帆(巫女圖 三中堂文庫 009) p. 273

4) 張文平 : 巫女圖(東西文庫) 解說 p. 278

5) 白承喆 : 金東里의 文學世界(蜜茶苑 時代 三中堂文庫 No. 272) p. 312

6) 金容稷 : 까지소리(東西文庫) 解說 p. 279

다. 가장 큰 인간 문제, 곧 죽음과 구원 문제를 절실하게 다룬 작품들이 제 3계열이었기 때문이며, 작품 하나씩 골라서 모두 3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필자의 작업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그 3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特異點을 찾아냄으로써 제 3계열 작품 성격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여 김 동리의 사상과 인생관과 철학관을 고찰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면 샤머니즘 계열로 어느 작품 하나를 택할 것인가? 신과 인간 문제를 최초로 (24세 때, 초기 활동기) 다루고 문제점을 불러 일으킨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보아서 巫女圖를 취하였고, 또한 불교계열로는 불교의 極的인 燒身의 美學을 다룬 “等身佛”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기독교 계열로는 作者가 會心作이라고 自評, ”自認하였으며 필자 또한 사상과 구성면에서 성공하였다고 보아서 “사반의 十字架”를 택하였다. 장편과 단편의 對比가 양적으로는 균형을 잃은 듯하나, 죽음과 구원의 관점이라는 내용에서는 대등하다고 보아서 이 세 소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할 때 소재와 작품전개, “나”의 관점등 7항으로 나누었다.

Ⅱ. 本 論

1. 소재와 작품 전개

巫女圖와 等身佛과 사반의 十字架, 이 3작품은 소재와 작품 전개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죽음이 확정된 실증적인 증거를 도입부에 제시하고 있다. 그 소설 주인공이 앞으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하고 독자가 궁금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미 주인공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가는 것이므로 수수께끼를 풀듯 전개된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갖게하여 주관적으로 이리저리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은 주어졌고 그 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말은 다시금 도입부와 만나게 되어서 首尾相關式이며 回歸式展開法인 것이다. 이러한 作法은 小說자체의 운명과 한계를 보여주게 된다. “마지막”결말이 어찌 될 지 모르는 궁금증을 담보로 독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지막 答은 보여주고 그 “가운데 과정”을 풀어가기 때문에, 독자가 興味를 느끼는 것은 마지막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작자를 따라붙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는가

7) 李炯基 : 新人間主義를 具現한 完熟의 大作(三中堂文庫 066, 作品解説에서), “사반의 十字架는 김동리의 그러한 신인간주의(제 3 휴머니즘)를 우리의 신문학사상 일찌기 유례가 없는 융취장대한 스케일로 전개시킨 장편이다. 빈틈없는 사건의 구성과 정확하고도 유려한 문장은 작품의 예술적 완벽이란 점에서도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다. ‘작가생활 35년만에 처음으로 작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신이 들었다’고 김동리 자신이 말할 정도이다.”

하는 공동해결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자는 독자를 끌고다니는 셈이 되므로 奇想天外의 극적인 단절과 전환수법을 쓰기는 힘들다. 진지하게 차근차근 전개해야 하는 創作的 制限을 받게 된다. 이 작자는 왜 이처럼 독자에게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는 結末露出手法을 쓰는 것일까? 너무나 현명한 독자를 속일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독자를 무시하여 마음껏 끌고다니는 것일까? 이는 작자와 독자 사이에 對立하는 力學的인 문제가 아니라 작자도 독자도 共同으로 갖고 있는 운명이며 진실인 “죽음”때문인 것이다. 작자나 독자나 인간이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아무리 천년만년 살 것같이, 무슨 소리를 하여도 결국 인생의 결말과 答은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自明한 사실을 애써 궁금하게 감출 것이 어디 있느냐? 문제는 그 죽기까지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며, 이 과정의 연장(線)이 죽음의 고비(點)를 넘어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작자는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자로 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으로 인한 수법이라는 말이며, 이로써 죽음(點)을 넘어 이어지는 구원(延長線)이 문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 소설은 죽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죽음 다음(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작자는 죽음을 마지막 카드로 아끼려 하지 아니 한다. 金東里가 말한 “나는 어려서부터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전율을 느껴왔다”는 告白을 序論에 例示하였거니와, 죽음에 대한 전율과 공포는 눈감고 외면하고 도피하면 될 것 같지만, 죽음의 宿命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한 가지 길은 죽음을 극복하는 길 밖에 없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문제를 철학 아닌 문학에서 답을 구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며, 여기서 필자가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쓰는 죽음과 구원이라는 정의를 이로써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 운명이며 人生의 終着點이며 공포와 전율이라면, 구원은 운명의 극복이며 生(形而上學的인)의 延長線이며, 해방과 자기완성(또는 實現)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가는 이 제 3계열의 宗教作品에서 구원을 최후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이다. 金東里式 宗教라고 위에서 필자는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신앙으로 原罪를 벗어남)과는 性格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제 作品을 들어 위에서 말한 바를 들어보자.

小說 巫女圖의 도입부인 맨 첫머리에 그림 巫女圖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예 3 뒤에 물러 누운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질펀히 흘러 내리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아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숙한 밤중이다. 강가 모래벌엔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이 앉아 무당의 시나위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와 온 듯한 피곤에 젖어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혼령으로 화한 듯 가벼이 깨жат자락을 날리며 돌아간다……

그림 하나에서 시나위 가락이라는 소리까지 찾아내는 통찰력을 가진 내가 이 그림에서 느끼

는 단어들은 “괴기와 어둠과 혼령으로 화한 듯”한 것이다.

예 4 소녀는 흰옷을 입었고, 옷빛보다 더 새하얀 그녀의 얼굴엔 가담모를 슬픔이 서리어 있었다.

예 5 나귀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울 메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었을 뿐 이라고 한다.

위 예에 나오는 소녀의 슬픔 묘사는 나의 할아버지가 말한 것이다. 내가 무너도에서 본 느낌과 할아버지가 그 무너도를 그린 소녀를 느낀 것을 합해보면, “죽음”이 단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나와 할아버지라는 두 증인을 세워서 시작부터 죽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소설 等身佛에서 내가 부처 等身佛을 처음 본 대목을 들어 보자.

예 6 머리위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헤벌어진, 그것을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等身大)의 결가부좌상(結跏趺坐像)이었다. (3줄락)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머리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오뇌와 비원(悲願)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도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짊 움켜잡은 듯한, 일찌기 본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부좌상이었다.

오뇌의 등신불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그 등신불의 금겹질 속에 癩身이 들어 있는 것이다! 작자는 도대체 독자에게 죽음자체를 감추려하지 않고 직접 제시해 버린다. 자, 어떻게 죽었는가——, 왜 그렇게 죽었는가 이것을 캐어가자—— 하는 충격효과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도 아시다시피 사반의 十字架는 新約 聖經에서 素材를 취한 것이다. 사반이라는 人物은 신약성경에 없다. 나오지 않는다. 聖經上 實存치 아니하는 人物이다.⁸⁾ 예수와 같이 죽은 無名 死刑囚는 있었지만 이름이 사반인지는 전혀 言及이 없다.

사반의 十字架의 소설 소재가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38절~44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39~43절 생략)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욱하더라”이다. 여기서 좌편에 있는 강도(도둑)가 소설의 사반인 것이다.

누가복음은 조금 표현이 다른데 이러하다.

예 7 (누가복음 23장 32~44절) 또 다른 두 행악자(行惡者)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8) 사반(Shaphan)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인물이다. 구약 열왕기 22장 3~11절, 역대하 34장 8~21절 서기 BC. 621년 여호와를 신봉하는 명문거족이었다. <백함출판사 刊 성경인명지명사전(1973. 5.)에 근거>, 그러나 신약에는 없는 이름이다.

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39절 생략)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41~43절 생략)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행악자(行惡者, 좌편의 사반)는 예수를 비난하고 오른편 사형수는 예수를 옹호하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하는 예수의 구원(사랑)을 입는 점이 다르다. 끝까지 예수와 대결하는 사형수 사반의 태도는 누가복음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서 引用한 위의 두 예문을 가지고 金東里는 會心作인 장편 “사반의 十字架를 지은 것이다. 이것은 영화 “바라바”와 “벤허” 작품을 방불케 하는 예수 당시 사건의 확대와 구체적인 창작인 것이다. 우리가 무심하게 보아 넘길 사형수인 강도 하나를 찾아서 이름을 붙이고, 성격을 설정하고 역사적인 영웅으로 창조해 놓은 金東里의 창작능력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돌아가서 사반은 분명히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요 行惡者(강도)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巫女圖는 내가 본 그림(무녀도)에서 이야기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等身佛은 내가 부처(등신불)을 보고 듣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반의 十字架는 이 도입의 실마리 곧 素材提示가 없다. 위 성경의 引用部分이 빠져 있는 것인데 이는 독자가 周知하는 바이므로 작자와 독자 사이에 생략해도 좋다는 默契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나”의 意味

이제 이 소설중에 나오는 “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무녀도 소설이 되도록 이야기를 독자에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작가 金東里인가? 作中人物 “나”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할아버지인가? 낭이의 아버지인가? 자기네 지난 이야기를 하소연 했다면 체험자인 소녀 낭이(瑛伊)인가? 아니면 낭이 어머니 모화와 오빠 옥이인가? 정말 原作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애매함이 드러난다. 무녀도의 그 뛰어난 구성과 구조와 문체는 과연 누구 것인가?

무녀도 맨 마지막 구절 “그네들이(낭이 부녀) 떠난 뒤엔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면 그 무성한 잡풀속에서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는 것은 누가 한 말인가? 낭이 부녀가 떠난 후 집의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무녀도에는 이야기 進行者가 行方不明인 것이다. 그러나 찾아보면 앞뒤를 보아 作中人物 “나”가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등신불 또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힌다. 金東里인가? “나”인가? 스님 원혜대사인가? 萬寂

禪師燒身成佛記인가? 燒身成佛이 口傳된 이야기인가?

사반의 十字架는 “나”가 빠져 있기에 내가 본 성경대목도 빠져 있다. 그러나 그 설정은 “나”가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성경을 보았다. 예수와 같이 매달린 한 사형수의 저항이 내 가슴을 울렸다. 그리하여 조사한 바는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導入部를 생략한 것이라는 말이다.

독자에게 도달되는 이야기 단계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에게 전해지는 과정

작 품	A 소설 완성		B 소설계기			C 소설내용
	a 독 자	b ←김동리	a ← 나	b 이야기해준 ←사람	c 이야기거리 ←와 계기	←이야기 내용과 죽음
1. 무너도	“	“	“	할아버지	무너도 그림	모화 가족이야기
2. 등신불	“	“	“	원혜대사, 成佛記	등신불 부처	만적스님의 고뇌와 소신 이야기
3. 사반의 십자가	“	“	(생략)	(생략, 성경)	(생략, 예수의 사형장면)	사반과 예수 이야기

일반적인 소설은 위의 A소설 완성과 C소설 내용만이 있으며, 主人公인 “나”가 口述하는 一人稱 私小說의 경우는 A, B, C가 다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해도 a “나”는 있어도 b 이야기해 준 사람과 c 이야기거리와 계기는 없게 마련인데, 이 표에 보이는 작품들은 특이한 전달과정을 갖고 있다. A, B, C단계가 명확한 채로 작품이 되어있는 것이다. 金東里의 다른 작품도 A와 C인데 유독 신과 인간을 다룬 제 3계열 작품중에서 이런 A, B, C의 과정이 있는 것은 왜 그러할까? 私小說이 아닌데도 결국 B의 “나”가 作中人物로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러할까?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자. 나 자신이 C부분인 죽음의 主人公인가 아닌가를 보면,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저 제 3자로서 호기심과 동정을 가지는 他人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나는 죽음의 운명에 밀착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 무관하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인 이야기꾼인 것이다. 人物로서도 그러하지만, C소설내용과 B나의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더욱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너도에서는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2,30년전에)그러진 그림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들려준 것>으로 되었으니, 祖孫間의 世代差에서 시간차이가 드러나고, 등신불에서는 무려 1200년전의 이야기라고 하였으며, 사반의 십자가 또한 2000년전 사건이다. 공간면에서도 내가 目擊할 수 없는 다른 곳이다. 무너도의 무대는 경주밖 십리나 떨어진 마을인데, 나귀타고 다니는 거리이며, 그밖의 작품 무대와 나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소설 내용상 주인공과도 해당없고 시간과 공간으로도 동떨어진 “나”가 왜 A와 C사이에 개입하는 것일까? 이는 인간 누구나 가지는 “죽음”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독자에게 Bb 이야기해준 사람과 Fc 이야기거리와

계기를 들어서 폭넓은 흥미와 공감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작자가 죽음과 구원 문제에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로 해석한다. 소설가의 철학적인 誘導와 說教에 독자가 모르는 사이에 따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소설가는 저항이 적은 인물로 소설내용과 하등관계가 없는 듯한(사실은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나”를 代行者로 내세워서 독자의 거부와 銳鋒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金東里 小説中 인생관과 철학이 깊이 깔린 제3계열 작품에 등장하는 “나”의 存在意味인 것이다. “나”는 “독자”당신도 될 수 있으니 다같이 참가해서 “죽음”을 생각해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3. 배경과 분위기와 현실 요소

위에서 필자는 이 세 작품의 공간배경이 떨어진 곳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너도의 무대는 경주 근방이며, 등신불의 무대는 중국의 깊은 산골 정원사이며, 사반의 십자가의 무대는 유대나라이며 특히 갈릴리 호수와 그 옆의 산에 있는 굴속이다. 나라와 地方도 외진 곳이지만 축소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과 집을 보면 더욱 격리된 곳임이 드러난다.

예 8 이 마을 한구석에 모화(毛火)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화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화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머리 찌그러져가는 목은 기와집으로 지붕위에는 기와머섯이 퍼렇게 뻗어 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짐주위는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린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에 위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의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체가 막힌 채 빗물이 피는 대로 일년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도 모를 여러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문힐 만큼 꺼멥게 엉키어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며 향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년 혹은 수백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 굴 같기만 했다.

모화가 사는 집은 마을 중앙이 아닌 한구석이며 도깨비굴 같은 곳이다. “세상사람들과는 별로 교섭도 없이 지내는 한 쓸쓸한 어미와 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화부터가 객지사람이고, 모화아버지는 70리 밖에 별거하다가 일년에 한두 번 오는 정도이다. 이처럼 집과 인물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一種의 怪奇美와 恐怖美와 異國의 거리감과 他鄉의인 정취인 것이다. 正常的인 現實과 거리가 있다.

예 9 등신불(等身佛)은 양자강 북쪽에 있는 정원사(淨願寺)의 금불각(金佛閣) 속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이름이나 등신금불 또는 그냥 금불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이 등신불, 등신금불로 불리어지는 불상에 대해 보고 듣고 한 그대로를 여기다 적으려 하거니와,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정원사라는 먼 지역의 고찰(古刹)을 찾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소설 等身佛의 시작은 위와 같다. 나는 지금부터 독자를 우리나라가 아닌 저 중국 異城의 古刹로 인도하겠으니 따라오라—는 호기심의 유발과 내 말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시작한다. 그 절은 남경을 떠나 밤중에 어둡고 험한 산길을 설새없이 이마의 땀을 씻어가며 밤새도록 걸어가서 이른날 늦은 아침녘에 도착한 거리에 있다. 세상과 거의 단절된 곳이다. 그리고 그 절안에서도 등신불이 안치된 금불각은 멀리 떨어져 있고 좁체로 구경하기가 힘든 장소이다. 공간적으로 멀리 깊숙히 동떨어져 있는 것과 함께, <예 6>에 묘사된 부처 등신불의 모습은 또한 일반 부처가 나타내는 大慈大悲의 온화하고 원만한 느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듯이, 그리고 燒身의 충격을 주듯이(예11), 인물이 주는 분위기도 正常의 現實과 어긋나 있다(예 10). 巫女圖와 같이 怪奇, 恐怖, 異國의 情趣가 들어있다.

예 10 눈거풀과 속눈썹이 바르르 떨리며 나의 눈이 열렸을 때 금불은 사흘전의 그 모양 그대로 향로를 이고 앉아 있었다. 거룩하고 원만한 것의 상징인 듯한 부처님의 상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는 듯한, 쩡그린 듯한 오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가부좌상임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그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같은 것이 전날처럼 송두리째 나의 가슴을 움켜잡은 듯한 전율에 휩쓸려 지는 않았다.

예 11 한적의 머리에 화관같이 씌여진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랫동안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지만 불기운이 그의 숨골(정수리)를 뚫었을 때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 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져 갔다. 들기름에 걸은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하여 나가는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그 앞에선 오백의 대중(승려)은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사반의 十字架의 시작은 이러하다 “<헤르몬>과 <언티레바논> 두 산에서 발원하는 <요단강>물은 동쪽으로 목마른 광야를 끼고 서쪽으로 <풀흐르는 땅>가나안을 안은 채 북에서 남으로 흘러 <죽음의 바다> 염해(鹽海)에 이른다……” 이 요단강 상류에 갈릴리 바다(호수)가 있다. 거기엔 사반과 그 동지들(血盟團)의 활동무대이며 일반인에게 잘 노출되지 아니 한다. 갈릴리바다 동쪽언덕 겐게사 부근의 높은 절벽위에 깊은 동굴이 그의 본부이며, 사반의 軍師이며 術客인 하닷과 같이 사는 곳이다. 하닷은 50이나 되어보이는 머리털과 수염이 반이나 센 중늙은이로서 붉은 띠 같은 구렁이와 죽제비같은 여우새끼를 기르고 호신용으로 쓰기도 하는, 도깨비같은 영감이기도 하다. 성경에도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기구한 여인이다.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비파소리를 내기에 사람들은 “물귀신”이라고 불렀다. “기름이 흐르는 듯한 검은 머리에 달빛 그것과 같이 창백한 얼굴빛, 그리고 정한(情恨)에 겨운 듯한 굵은 두 눈이었다. 여자는 입가에 떨떠름한 웃음까지 띠는 채 사반을 바라보았다”로서 묘사되는 여자이다. 사반의 十字架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예수를 포함해서)과 활동무대를 더 들지 않겠는데, 처음시작의 유대나라 요르단강의 제사와 굴속, 갈릴리호수 등의 장소, 그리고 사반과 하닷과 막달라 마리아 등의 인물에서 神秘, 怪奇, 恐怖, 거리감과 異國의인 情趣를 느끼게 된다. 결국 무녀도와 등신불과 사반의 十字架, 이 세 작품은 같은 환경과 분위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재미인가 하는 데에는 各論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現實的이고 通俗的인 재미가 먼저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면 아기자기한 사랑과 짝은 性과 방탕과 또는 사기와 풍자와 욕설과 웃음과 돈 등등이다. 이 세 작품에서는 이러한 通俗的인 재미 요소가 없다. 말하자면 現實要素는 없이 처음부터 긴장을 주며, 무거운 분위기와 좀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립갈등이 만남없이 平行線으로 치닫게 된다. 갈등의 平行線은 무너도의 모화와 낭이, 등신불에서 만적의 내적갈등,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사반이 해당한다. 죽음에 직면한 너무 큰 철학적인 命題가 눈앞에 있기에 엄숙한 진행과 분위기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본다. 독자가 되도록 죽음에 직면하고 離脫을 해서는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점은 다음 인물성격에서도 그러하다.

4. 人物의 性格

정말 이상하리만치 세 작품에 등장하는 人物은 인물 성격과 운명이 비슷하다.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나중의 죽음에 서서히 직면해가며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니, 처음부터 逆境 속에 설정된 사람들이다. 어쩌면 너무나 가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죽음과 신의 문제에 等閑하기 때문에 切實한 人生문제 제기를 위하여 죽음과 밀접한 인물을 처음부터 설정한 것이라 본다. 市井의 口語體를 빌려 말한다면, 가정적으로 온전히 성한 사람은 없고 다들 가정을 잃은 사람들이거나 반쯤 멍든 사람들을 애초부터 내세워서 죽기 쉽도록(고민 갈등은 남보다 많이 하지만) 이야기를 꾸민 것이라고 하겠다.

우선 무너도의 세 인물을 고찰해 보자.

모화는 무당이다. 남편이 있으되 저 70리 밖에 있고, 일년에 한두번 볼까말까한 남같은 사람이다. 물론 모화는 모화땅에서 온 他鄕사람이며, 그 동네 외진 곳에서 쓸쓸히 살아가는 여인이다. 떠난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이면서 의식면에서도 절반쯤은 무속세계에 “님”과 “巫歌” 속에 살아가는 半現實의 모화이다.

예 12 모화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별안간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하였다. 물으던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맡아 있는 것뿐이라 했다.

예 13 모화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했다. 어린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다. 때로는 개나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다. 그녀의 눈에는 때로는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비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고기, 나비, 감나무, 살구나무, 부지개이, 향아리, 섬들, 짚신, 대추나무가지, 제비, 구름 바람, 불, 밥, 연, 바가지, 다래끼, 술, 손가락, 호통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람같이 생각되곤 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님>이라 불렀다.

모화에게 思想을 불어 넣어서 精靈主義라거나 梵我一體의 梵思想의 소유자라고(金東里의 作品思想으로 볼 수 있겠지만)말하기는 힘들다. 모화가 주체가 되어 外界를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화가 약해서 外界에 끌려가는 脫現實의 상태인 것이니 몽롱한 의식, 巫神에 심취한 꿈꾸는 듯한 生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화이기에 흐리멍덩하다고 보면 안 된다. 비록 남편을 달리하여 아들 옥이와 딸 낭이를 낳고 낭이아버지와 어찌된 일인지 떨어져 살고, 자기가 사는 그동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화이지만, 자기 종교와 사상인 巫俗을 위하여 異教徒인 기독교신자인 귀한 아들 옥이를 칼로 찌를 수 있고, 죽은 혼백을 건지려고 죽음을 감수하는 신념과 용기가 있는 인물이다. 님과 노래에 심취되어 있기에 더욱 盲目的으로 강한 인물이 된 것이다. 모화는 떠나온 사람이며 떨어져 있는 사람이므로 人情에 좌우됨이 없이 자기세계와 所信을 가지고 죽음에 용기있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모화의 아들 옥이를 살펴보자. 모화가 아직 모화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지피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사생아였다. 사생아 옥이는 매우 총명하여 어려서 공부하러 절간에 갔다가 거기를 떠나서 독실한 기독교신자가 된다. 옥이가 돌아와서 정말 오랫동안 母子가 血肉의 情을 갖지만 그들의 종교적 갈등으로 허무하게 어머니 칼에 찔려 죽는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으로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으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모화의 무당힘이 기독교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옥이는 어머니에게 죽지만, 죽은 후 어머니를 弱化시키고 종내는 어머니를 죽게하는 기구한 아들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옥이도 성한 사람은 아니었다.

낭이는 모화의 딸이며 옥이의 同腹異父 누이동생이다. 몹새 따르던 오빠 옥이가 떠난 후 3년간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길로 귀가 먹어 버렸다. 낭이는 낮에는 매일 집을 떠나있는 어머니 대신 혼자 그 무서운 집을 지키고 살다가, 옥이가 돌아오고 나서는 태도가 아룻하게 변해진 것이다.

예 14 그 호리호리한 몸매와 종잇장같이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굵은 두 눈으로, 온종일 말 한 마디 웃음 한번 웃는 일 없이 방구석에 틀어 박혀 앉은 채 옥이의 하는 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어 처마끝에 희부연 종이 등불이 걸리고 하면, 피에 주린 모기들이 미친 듯이 때를 지어 울고 날아 드는 마당구석에서 낭이는 그 일음같이 싸늘한 손과 입술로 옥이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든곤 했다. 옥이는 문득문득 목덜미로 가슴팍으로 낭이의 차디찬 손과 입술을 느낄 적마다 짹짹 놀라곤 하였으나, 그녀가 까무러칠듯이 사지를 떨며 다시 뛰어들제면 그도 당황히 낭이의 손을 쥐어주며, 그 희부연 종이 등불이 걸려있는 처마밑으로 이끌곤 했다.

가련한 낭이에게는 돌아온 옥이가 오빠이기도 하며 異性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서운 집안에 나타난 든든한 男性이었다. 그런데 옥이는 이내 죽고 어머니도 죽는 비극이 계속된 후, 어머니 없이 혼자 열흘쯤 지난 후 완쾌하지 못한 몸과 썩한 눈으로 아버지에게 매달린 후 자기 집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간다. 예 4와 예 5에 보이는 낭이는 처절한 슬픔을 지니고 어

머니의 最後를 그려서 巫女圖로 남겼다. 어머니가 죽은 후 약간 말을 하고 알아 들을 수 있었다. 슬픔과 고독과, 일반현실과 차단된 채 의사소통의 불편과, 병약과 어머니와 오빠에 대한 情과 恨이 철저하게 밴 낭이도 健全한 人物은 아니다.

等身佛에 나오는 어머니는 아들 만적을 데리고 사구라는 사람에게 改嫁와서 전실자식인 사신을 기르는 터인데, 자기가 데려온 자식 만적에게 재산을 주려고 전실자식인 사신의 밥에 독약을 탕다가 만적이 그 독약든 밥을 알고서 먹겠다 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사신은 독살을 모면하고 집을 떠나 방랑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는 독살을 면했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지 않고 점진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天刑(문둥병)에 걸려 있었다.

한편 만적은 사신의 일로 가정을 떠나 마침내 중이 되었다가 자기 몸을 燒身供養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두 자식을 잃어버렸고, 사신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만적도 스스로 몸을 태워서 죽게 되니 등신불의 3 인물은 다 불행한 인물들이다.

사반의 十字架는 어떠한 人物들이 나오는가를 보자.

사반은 코밑에 약간 노기를 띤 듯한 시꺼먼 수염을 달고 어깨가 꺾 벌어진 사나이로 나라를 로마에서 구하려는 民族英雄이며, 血盟團의 단장이다.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상품을 가지고 항구를 떠난 후 소식이 없었다고 하니 아버지 복이 없는 遺腹子라고 하겠다. 7살 때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여자아이(사생아)를 하나 낳아 바로 이튿날 강가에 버렸는데, 이것이 어머니의 흠이 되어서 사반은 14살 때 정혼한 여자집으로부터 파혼을 당했다. 3년 후 장가를 갔으나 첫날밤에 기절한 색씨는 공포속에서 살다가 녀달후 죽었다. 결혼에 실패한 사반은 18세부터 방랑생활을 시작하여 동굴을 발견하고 굴속에서 하닷을 만난 후 무술을 닦은 뒤 25살때 혈맹단을 조직하여 對로마 무력 투쟁에 나선다. 자기는 암별이요 7년후 솟별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와 힘을 합하여 로마군을 격퇴하려는 신념을 갖고 비밀조직을 갖게 된다. 귀중한 메시아날에 봉기하려는 사반에게 요한이 나타나고, 다음에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나 무력으로 로마에 대한 실질 투쟁을 하는 예수나 메시아는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團師 하닷을 구하려다가 아굴라라는 他國 使臣의 배신으로 잡힌다. 이때 단검으로 눈을 찔려 애꾸눈이 되었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모습으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박혔던 것이다. 父母에 대한 갈등, 결혼의 실패,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霧散, 배신으로 체포, 병신된 몸으로 십자가에 죽음, 최후로 예수의 기적을 바라던 것까지 좌절…… 등이 사반의 一生에 점철된 사건들이다. 사반은 과거가 많은 물귀신 막달라 마리아를 情婦로 맞았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가 일찌기 어머니가 버렸던 同腹異父의 누이동생이었다. 이 天倫의 運命 등등 사반은 悲劇속에 살아간 인물이다.

막달라 마리아는⁹⁾ 사반의 누이동생이다. 사생아로 버려진 이 여자는 남의 손에 자라서, 열

9) 이 소설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八字사나운 기구한 運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다섯 남편이 있

네살 때 처음 결혼했으나 일년남짓 동거하다가 남편은 죽고, 다음은 17살 때 喪夫한지 두 해 후에 再嫁하였으나, 1년 남짓 동거하다가 남편에게 불치의 병이 있어서 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을 버리고 달아나 온 것으로 세상 사람은 알고, 마리아를 두둔은 커녕 비난과 욕설을 하였다. 그 뒤 얼마동안 애매하게 살다가(품행이 나쁘다는 뜻인 듯하다) 권력으로 마리아를 잡은 로마백부장과 2년간 살았다. 그러다가 부자 사냥을 하여 강도질하려던 사반의 화살을 잘못 맞은 백부장이 죽자 다시금 과부가 되어, 낮에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갈릴리바다의 물귀신으로 청승스럽게 비파소리를 내다가, 남편(로마백부장)을 죽인 사반의 情婦가 되었다. 고혹적이며 열정적인 체온과 이십대의 난숙한 육체미의 소유자로 사반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사반의 본처 실바아가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아, 사랑은 하나이지 반일 수 없다고 하며 사반을 떠나 다시 물귀신노릇을 한다. 그러나 다시 사반을 만나서 戀敵인 실바아가 다른나라에 납치되자 獻身의으로 구출작전을 벌인다. 그때 마리아는 지금 친부모로 알았던 어머니가 자기를 주어다 길렀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사반과 다시 헤어진 뒤 예수를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발을 씻으며, 발에 입을 맞추고, 나아드 香油를 쏟아 부어, 예수로부터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편안히 돌아가라”는 구원을 받는다. 마리아는 무서운 운명을 안다. 남편이요 애인인 사반이 오빠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生母라는 것을, 남편 여럿이나 같고 죽게한 팔자사나운 일곱 귀신들린 죄 많은 여자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天倫을 犯한 것을. 이처럼 “구원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심각한 절망속의 마리아는 어찌 되었는가? 죽었는가? 자살했는가? 아니다. 예수제자 빌립의 안내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다시 再生한다. 침묵으로 과거를 다 잊는다. 사반마저도 잊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여인이 되었다. 로마군에게 갇힌 사반을 위해 노력을 부탁받고도 “나는 사반도 과거도 모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고 하며 거절한다. 예수에게 반해서 따른다거나 예수왕의 왕비가 되려고 한다는 말이 들려도 그는 새로운 마리아가 되었다. 예수무덤을 일요일 새벽에 찾아 갔고 거기서 예수부활을 인류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한 것은 성경에 쓰인 대로인데, 가장 죄많은 여자가 가장 성스러운 예수와 不可分の 관계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인물 하닷은 어떤 인물인가? 앞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는 하닷은 마르고 노리끼한 얼굴에 수염이 하얗게 세어서 나이보다 더 늙어보인다. 본래 아라비아인으로 15살에 혼인하고 16살에 만아들을 낳고 17살때부터 집을 떠나 道術을 닦아 50대에 이르렀는데 3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나그네처럼 집을 다녀 올 뿐이다.

예 15 이와같이 하닷이 버젓이 가정을 두고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평생을 굴에서 보내며 수도와 방랑을 일삼은 것은, 그에게 따로 무슨 출세를 한다거나 돈을 번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요, 별과 사귀는 흥미와 습관과 사명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찌다 여러 해 단애 집엘 들르는 일이 있

었다가 예수에게 구원받은 사마리아 女人의 운명을 借用한 것으로 보인다.

을 때도 처자를 보고 말을 건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몇몇하지 않게 느껴지며, 그것이 사흘이 지나면 무언지 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같은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만큼 만천(滿天)의 별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모두 어떤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듯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별은 앓고 있다거나, 어떤 별은 여행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별은 잠을 자고 있다거나, 어떤 별은 노해 있다거나 하는 따위로 모든 별이 그에게는 감정과 성격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사귀어 주는 듯이 느껴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여행을 떠난다거나 곁을 바꾼다거나 하는것도 별과 상의한 결과, 별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데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실비아(딸)를 잡자기 이 동굴 속으로 불러 오게 한 것도 이와 같은 별의 가르침을 좇았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위 예 15와 巫女圖의 예 13을 비교해보면 <하닷~모화, 실비아~냥이, 굴속~외단집, 별~님, 사반이 떠난후에 占星하던 곁을 지키다가 하닷이 죽음~육이가 죽은 후 자기 巫神을 지키다가 모화가 죽음, 아라비아에서 집을 떠나오다~모화에서 경주로 오다> 등은 서로 對應, 一致한다. 聖經의 人物을 東洋 또는 한국에 接木하여 탄생한 인물들이 하닷, 사반, 막달라마리아 등이다. 특히 하닷은 더욱 그러한데 하닷이 모화역을 한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예수의 性格마저도 東洋的이며 韓國的으로 加味되었다.

위에서 3 작품에서 자기 3 인물을 들어 곧<모화·냥이·육이/어머니·만적·사신/사반·막달라 마리아·하닷>을 살펴보았다. 죽음에 近接한 위 인물들은 다들 “가정” “가족”에서 실패한 문제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哲學과 思想이 강조된 제3계열인 신과 인간관계를 다룬 작품에는 죽음이 깔려 있고, 그 죽음은 脫家庭, 反家庭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人間性을 찾으려는 제3 휴머니즘, 新人間主義를 제창한 金東里의 의식속에 家庭, 家族意識이 潜在하여 있다. 죽음과 가정이 결부된 그 이유는 金東里가 東洋的·韓國的을 찾을 때 이 지역 胎生이라는 점, 곧 典型的인 東洋人이며 韓國人이며,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의지때문이라고 본다. 새로운 문학을 개척하기 위하여 巫女圖를 중편소설로 개작할 작정이라고 작가는 포부를 말 하였으며¹⁰⁾, 실제로 “乙火”라는 作品을 1978년 發表하였다, 가정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얼마만한 改作幅인가 하는 문제는 本稿에서 論外로 하겠다. 요컨대 東洋人과 韓國人의 행복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을 떠나서는 불행과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 金東里가 사랑하면서, 그의 思想을 代言하는 作中人物에 나타난 결과이다.

5. 죽음의 과정

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주인공들은 죽음이라는 운명에 거역 항거하지 아니하고

10) 金東里는 새로운 思想을 심고 더 좋은 옷을 입혀서 자기의 作品을 改作하는 作業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이미 한 “바위”의 改作이다. 앞으로 巫女圖는 중편소설로 개작 (上揭書에서)할 것이 된다. 作品名이 바뀌는 것으로는 佛畫(原題率居), 庭園(原題 剩餘說)등이다. 發表以後에도 계속 자기 分身을 아끼고 가다듬는 作家精神은 훌륭하다고 하겠다. 新作 바위와 舊作 바위의 비교논문은 鄭昌範교수의 “김동리의 바위”(작품인물의 심층분석, 평민사, 1978)을 볼 것.

받아들이는데, 吟味하듯 점진적인 과정을 겪는다. 죽음에 공포를 갖지도 않고, 終末이라는 의식도 갖지 않고, 차라리 새로운 삶의 출발과 追求로 본다. 永生으로 통하는 한 과정으로 보며 그러한 昇華단계로 생각한다. 자기 죽음은 자기 몫(所有)이므로 끔찍한 自殺같은 것은 없이 最善을 다해야 하는 행위로 보며, 그 죽음의 결과는 헛된 無爲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다음 세계의 출발이며 남에게는 리로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비유한다면 마치 한 그루 나무가 죽고 베어지는 것과 같다. 왜 죽음에 항거하거나 도피하지 않는가? 대립 갈등하는 두 인물은 타협이 없이 자기 세계와 思想을 고집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미련없이 죽게 되는바, 이 자기세계와 사상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巫女圖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떻게 인물갈등과 작품단계를 나눌 것인가. 毛火가 부르는 巫歌의 回數와 거기에 相應하는 옥이의 죽음의 과정을 기준으로 나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화와 옥이는 母子의 血肉이지마는, 그들 세계와 사상은 타협하지 아니하므로 兩人을 이치럼 對比하는 것이다.

모화와 옥이의 죽음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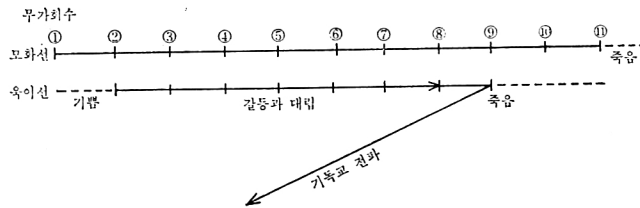
㉠ 무가회수	㉡ 모 화(어머니)	㉢ 옥 이(아 들)
1 회	능력있는 무당, 기쁜생활, 딸 위해 노래하고 춤추다	(없음)
2 회	신주상앞에서 손 비비다. 아들의 예수귀신을 쫓다	기독신자 옥이가 성경제시, 무당 반대하다
3 회	上同, 옥이에게 물기없다	갈등 느끼고 기도하며 집나가다
4 회	나간 아들 찾고 예수 귀신 쫓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다	信者의 도움을 청하다. 창백해지다
5 회	더욱 날뛰며 성경책을 불태우다	한숨 쉬며 방안에서 어머니를 보다
6 회	더욱 더 날뛰며 재에 소금뿌리다	방문 뛰어나가 어머니께 가다
7 회	칼들고 춤추다가 옥이 뒷등을 찌르다	어머니께 물기없고 대들다가, 불길 잡으려다가 썰리다
8 회	무당능력 약화, 아들을 간호, 기독교 반대 강화	병세약화, 기독교성장과 교회건립
9 회	아들죽고 실신, 미친듯 지내다	부흥 목사오다. 옥이 죽다
10 회	예수 귀신과 대결하는 마지막 곳을 하다	(없음)
11 회	넋두리와 함께 애기소에 차츰 잠겨 죽다	(없음) 낭이 귀트이고 아버지가 테러가다

옥이가 없었을 때 모화는 능력있는 무당이였으므로 그의 세계와 사상과 권위에 아무런 도전이나 장애가 없었다(1회). 그러다가 옥이가 등장한 후 두 사람은 대립이 교차되어 2회→3회→4회→5회→6회로 진행할수록 深化 尖銳化하다가 드디어 7회에서는 아들의 등을 찌르는 사건으로 폭발한다. 그때 모화의 무당능력은 最高 限界에 이른 것이다. 8회→9회→10회는 모화자신과 그의 무당능력의 弱화過程이다. 그리고 10회→11회에서 再起하려던 最後의 노력이 水泡로 돌아가자 모화의 무당능력과 모화생명은 함께 沈沒, 죽게 된다. 사실은 모화가 옥이를 만난 2회부터 서서히 기독교(옥이)에게 弱勢로 몰려 下降하고 있었으며, 7회에

서 그의 안간힘을 쓰다가 失敗하고, 11회에서 다시 生命을 걸고 도전하다가 두번째 실패하게 되자 모화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옥이는 10년만에 집에 돌아와서 반갑게 어머니와 만나지만 이내 信仰·思想對立에 접어들어 深化, 尖銳化하다가 7회에서 폭발하고, 어머니와 같이 8회→9회에서 약화하다가 죽는다. 옥이의 몸은 칼에 찢려 악화되어 차츰 죽어가게 되지만, 그 개인에게 있던 신앙이 밖으로 나가서 대중으로 擴散·傳道되어 교회가 서고 신자가 느는등 신앙면에서는 살아나서 발전한다. 곧 옥이의 몸은 죽고 옥이의 신앙은 그로써 산다. 모화가 죽은 후 낭이가 말을 알아듣게 된 것은 모화나름의 딸을 위한 利他죽음덕분¹¹⁾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옥이같은 신앙발전이 아니라는데서 그의 죽음 이후가 허약하다. 그러므로 옥이에 비하면 모화는 몸도 죽고 신앙능력(무당으로서)도 다 죽는다.

모화와 옥이를 線으로써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을 보면 모화는 죽음 그것으로 끝나 있어서, 한국적 土俗 信仰을 상징하는 모화가 서구적,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옥이에게 패배하는 것을 크게 역사적인 의미로 보고, 이는 한국적인 것이 서구적인 外來文化에 패배한 것을 뜻한다¹²⁾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는 西歐文化의 굴절과 東洋의 情緒의 환원¹³⁾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母子間의 갈등을 이런 物理的인 힘의 強弱으로 보지 않고 自己世界 (신앙, 사상, 觀)의 充實이란 면에서 보면 모화와 옥이는 다 똑같이 죽음을 극복하면서 성공을 거둔 동등한 힘을 가진 인물이다. 사랑하는 母子間인데도 어느 한편이 양보하지 않고 왜 平行線

11) 巫女圖 끝을 보면, 모화의 마지막 곳이 영감을 틀림없이 나타낸 결과라고 確言하지 않고, “영감을 나타냈는지”로 半信半疑한다. 이것은 모화능력의 약화며 작자나 洞民이 모화를 인식하게 대한 모습이다.
 12) 李炯基: 前掲文에서 p.273
 “이 모화의 죽음은 외래사상인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한국의 토속신앙이 폐퇴하는 비극을 상징한다”
 金允植·김 현: 韓國文學史(民音社) p.245
 “그녀(毛火)의 죽음은 단힌 사회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상한다.”
 13) 金炳翼: 自然과 親和와 歸衣~金東里論~韓國文學(1973. 12月號) p.237

으로 자기고집만 하다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서 죽게 되었을까? 첫째는 母子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가며 같은 사상으로 同一化할 수 없었던 시간과 장소의 간격때문이며, 둘째는 자기 사상과 신앙에 너무 충실하여서 이를 죽음보다 上位에 두었기 때문이다. 한집에서 살며 가정과 生을 上位에 두었다라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며, 그러하였다면 구원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거와 모화는 2회→11회로 계속되면서, 육이는 2회→9회로 계속되면서 서서히 죽어가며, 죽음 자체에 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모화의 최후는 다음과 같다.

예 16 모화는 냇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물에 써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며 닢두리도 허황해지기 시작했다. (무가생략) 모화의 몸은 그 닢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져 버렸다. 처음엔 책자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 버리고, 냇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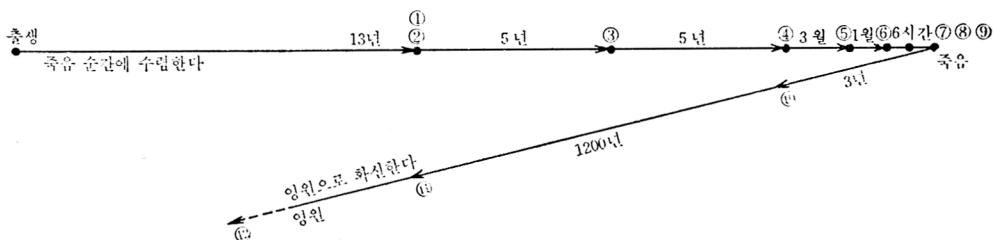
이제 등신불에서 만적의 죽음을 다루겠는데, 그 죽음의 사건과 과정을 시간순서로 단락을 짓고 죽음과 苦行의 교차, 중첩을 시간을 재어가며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만적의 죽음과정

㉠기간·시간	㉡죽음 과정과 사건	㉢죽음과 고행	㉣기적·감화
① 12살까지	아버지 죽음, 어머니 개가, 독살 미수사건으로 형이 떠나다.	죽음(남)	
② 13살(13년간)	만적은 집을 떠나 몸을 감추어 중이되다	고행(자기)	
③ 18살(5년간)	취희스님 열반, 報恩燒身 결의 운봉선사 아래에서 수도	죽음(남) 고행(자기)	
④ 23살 겨울(5년간)	문둥이가 된 형 사신을 만나다.	죽음(남)	
⑤ 24살 봄(3개월간)	겨울 고행 火食 끊고 목욕제계	죽음 고행	
⑥ " 2월 1일	취단식 갖고 들기름 붓다. 단식시작	죽음 고행	
⑦ 3월 1일(1개월간)	11시 燒身供養, 불타서 연기로 化하다	죽음 고행	
⑧ (1일, 6시간)	5시 비가오나 단에는 비가 안내리라	죽음완성	비 안 내림
⑨ 죽는 순간 (0)	죽다	0	圓光생기다, 神異생기다. 모인 사람佛恩 느껴 병 낫다
⑩ 사후 3년	等身金佛이 되다	오뇌와비원모습	세전 계속, 병났고 아이 낳은 영검있다
⑪ 사후 1200년	계속 보존되다	"	내가 감화받다.
⑫ 앞으로 영구히			

먼저 ㉠시간·기간을 보면 죽음의 순간(點)으로 加速度로 收斂하다가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는 무한한 시간으로 發散함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선, 수렴선과 발

산선으로 그릴 수 있다.



㉠죽음과정과 사건 또한 ㉡죽는순간을 向해 深化, 尖銳化하는 것이다. 이는 巫女圖의 그림과 同一한 進行이다.

㉢ 죽음과 고행은 처음에 교대로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다가올 때 고행은 시작되는데, 죽음이 순간적이며 진한(濃縮)한 의미라면, 苦行은 장기간 열은 의미이다. ①의 사신의 죽음위기와 ③취퇴스님의 죽음과 ④의 사신의 죽음 같은 것(동어)은 만적으로 보면 他人의 죽음이지만, 그는 이 밖에 있는 남의 죽음을 자기안으로 끌어들어서 자기죽음으로 변화시키려하고, 그 결과가 苦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남의 죽음과 만적의 고행이 장시간 교대되다가, ⑤에 이르면 드디어 만적의 죽음으로 實現되면서 죽음과 고행은 만적 한 사람으로 內面化하고 合一된다. 이러한 때에 시간의 템포가 빨라지는 때이다. 만적의 몸은 죽는다. 그 순간 만적의 신앙은 구경꾼에게 佛恩으로 傳達되어 병이 낫는 등 神異가 생긴다. 그것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亡命圖生한 나에게까지, 1200년을 격한 오늘날까지 감화를 미치게 된다. 결국 남의 죽음까지 끌어들여 만적의 몸은 죽지만, 만적의 신앙(佛力)은 산다. 이 점은 이미 말한 무너도의 옥이의 죽음과, 앞으로 말할 사반의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같은 진행이며 의미이다. 곧 세상죄를 지고, 세상사람의 죽음을 끌어들여 죽음과 고행을 하나로 농축시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사후에 부활하여 神異와 法力(기독교신앙전파)을 나타내어 利他 죽음을 실현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옥이와 만적과 예수는 “죽어서 사는 자”가 되었으며, 그러지 못한 사람과 對比를 이룬다. 시간과 주인공과 他人이 죽음과 고행에서 사건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사반의 十字架를 고찰해 보자. 이 작품에 나타난 예수의 성격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예수가 막연한 대로 유대나라와 유대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다섯 살 나던 때부터였다. 그와 동시에 그것도 막연한 대로 자기가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특수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예수의 私生活期(私生涯)

인 30세까지 기간 중 少年期에 두 가지 의식이 10살 넘어 윤곽이 잡히고 12살때 성전을 내(아버지의 집)이라고 언명할 정도로 성숙하였다. 유대의 역사와 로마 지배하의 현실을 깨닫는 民族主義者로서의 예수의식은 젊은날의 고민을 안겨주었다. 그와 함께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차기가 여호와의 증거로 쓰일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땅위의 정치적인 유대 현실을 타개하고(民族主義者), 이 지상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것(召命意識)이라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다가, 광야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난 후 地上次元에서 天上次元으로, 私生涯에서 公生涯로 비약, 전환하게 되었다.

예 17 예수는 그때까지도 유대인과 로마인의 현실적 관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뜻을 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광야의 소리>를 들은 한순간에 홀연히 뒤집혀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은 성신으로 충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수는 이처럼 땅에서 하늘로 변해버린 사람이고, 사반은 여전히 예수의 젊은 날의 교민 시절, 곧 以前시절과 같이 땅을 고집하는 사람이므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극히 적은 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¹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예수의 다음 행적은 거의 聖經에 따랐으므로 이만 그치기로 한다.

예수와 사반이라는 相反된 두 인물의 對立이라는 점에서 본 소설 사반의 십자가는 이들의 단남을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대화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예 18 1차만남 마태의 잔치 집에서

사반 (메시아라는 자기생각을 다짐하려고)랍비여, 당신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오니까?

예수 (미미한 경련이 지나며) 사람이여, 그대의 기다림이 하늘나라 것이라면 나를 따를지니라.

사반 (칼날같은 것이 가슴에 쿵 쥘림을 느끼며, 떨면서)랍비여, 우리는 땅위에 있나이다. 땅 위에서 맺은 것을 땅위에서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 (물흐듯한 투명한 목소리로) 사람이여, 들으라. 사람이 땅위에 있음은 오직 하늘에 맺기 위함이라.....

사반 (메시아를 의심하며 항의하듯)랍비여, 이스라엘은 하늘에 맺은 땅이요 백성이외다. 이스라엘을 땅 위에서 서게 하소서.

예수 (서글픈 얼굴로 일축하며) 사람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늘에 맺었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라.

사반 (침통하게, 예수를 뿔대선 굵고 무서운 눈으로 보며)랍비여, 우리 조상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 왔나이다. 모세가 그 고난속에서 이곳까지 이끌어 온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끝내 땅에 서게 하려함이 아니었나йка?.....

14) 본 소설에서 양자의 영향을 예로 들면 이리하다.

사반이 일차 예수와 상담한 후 “자기의 현실적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고 하였고, 예수도 사반의 地上解放論에 충격을 받아 神癡기적 보다 설교에 치중하게 되었고,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말을 들어가게 하였다.

예수 (투명한 목소리로)사람이여,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늘에 맺지 않았던들 지금 입자가 이 자리에 있기 어려울지니라……

사반은 충격으로 땅을 묻고 예수는 시종일관 의연하게 하늘을 대답하므로 사반의 사상을 뒤집어 놓으려 한다. 그러므로 사반이 단적으로 고백한다. <우리와 그의 사이에는 합작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네. 우리가 땅을 말하면 그는 하늘을 말하고, 우리가 현재를 말하면 그 사람은 과거나 미래를 말하고,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을 말하는 듯하네>라고.

예 19 2차만남 기도산에서

사반 (진지하게)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모든 선지자와 다르고, 율법사와도 다른 이인인 줄 아나이다. 오늘의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나는 로마인을 죽였나이다.

예수 (냉정하게)사람이여, 살인한 자는 천국에 갈수 없나니……

사반 (두려움 없이)랍비여,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수 많은 애굽인을 죽였읍니다……

예수 ……그대가 비록 이스라엘을 위하여 로마인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영원히 화평을 얻지 못할 것이요, 피는 피를 끌어서 더 환란 속으로 빠지게 할 것이니라.

사반 <메시아의 명령을 내려 지배자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죽음을 구하소서.

예수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모든 영화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잠깐 머무나 곧 지나가는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하늘 나라에 거둬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느니라.

사반 사람의 생명은 육신과 더불어 있으며 사람의 육신은 또한 땅과 더불어 있나이다……

예수 ……사람이여, 들으라. 그대는 나에게 청하여 王이 되라 했으나 나는 이미 저 높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새로운 왕국을 세웠느니라. 사람이 만약 그 생명을 나의 왕국에 맺는다면 그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지니라.

사반 랍비여, 당신의 세우신 하늘의 왕국은 죽은 뒤에나 가는 곳이었사(당장 죽어가는 우리를 구소서)

예수 사람이여 바다(갈릴리호수) 건너편에 있는 형제의 죽음을 걱정하면서 그대 스스로가 이미 죽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라를 위하여 모세처럼 적을 죽였다고 하는 사반에게 벌을 받아라 하고, 지상의 나라를 사반이 말하면 하늘 나라로 예수는 대답하는 양자의 대립이 역력히 나타난다. 그들은 너무나 주장과 개성이 강하여서 예수는 옛날 자기 私生活期の 民族主義者로 환원하거나 後退하려 아니하고, 사반은 歷史上에 나타난 모세를 引用하며, 예수와 같은 次元의 變化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없는 비극으로 치닫는 것이다. 둘다 民衆의 指導者이지만 마차를 하나는 동으로 끌고 하나는 서로 끄는 주장을 계속하여 비극을 초래한다.

예 20 3차만남 十字架上에서

사반 예수여

예수 ……

사반 임자는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 ……

사반 왜 표적을 보이지 않는가? 메시아의 표적을.

예수 그대는 일찌기 그것을 보지 못했던가?

사반 지금이 그때다! 지금 다시 보여야 한다.

예수 때는 지났다. 나는 항상 잊지 않으리라

사반 예수여 임자는 유대를 버리는가?

예수 그대는 고통속에서도 오히려 유대를 생각하는가?

사반 이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하라.

예수 육신의 아픔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리라.

사반 (최후의 메시아 기대의 좌절로 절망을 느끼고 죽음을 甘受하다. 예수가 다른 죄수를 구원하자 화가 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예수를 꾸짖었다)비겁한 자여, 너는 유대나라와 너의 생명을 버리고서 어디서 낙원을 찾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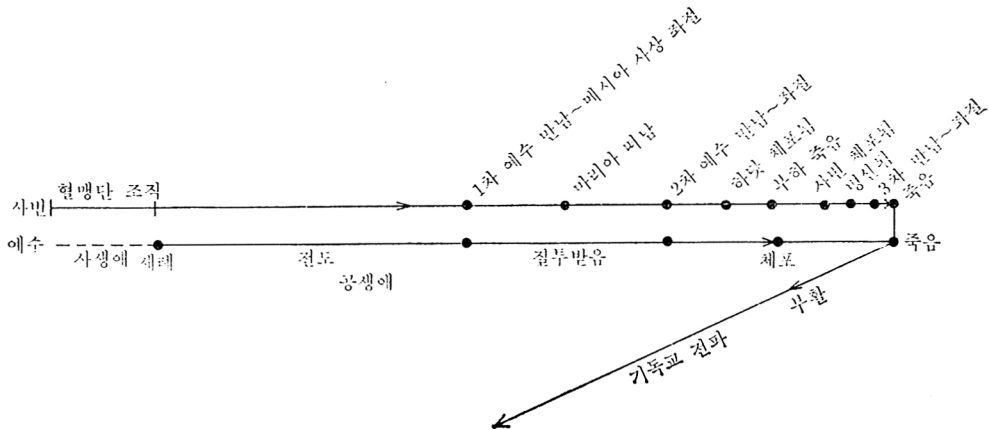
예수 ……

人間次元에서 사반은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예수를 찾는다. 처음은 메시아로 알고 “랍비여, 랍비여”하여 존대하다가 죽을 때는 “비겁한 자여 너는~”하고 저주와 원망을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자, 죽음에 몸을 맡기는 것에서 평안과 쾌락같은 것을 느끼고, 무서운 고통, 견딜 수 없는 가책에서 비로소 놓임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 사반은 죽음에 저항하지 않고 영접하였으며, 손에 못을 박는 고통에서도 꺾끗이 견디었는데, 十字架上的 예수는 못박을 때 너무나 아픔을 참지 못해 “오오 아버지여 아버지여!”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최후로 죽는 순간에 갑자기 발작과도 같은 소리로 “나의 하나님이지여, 나의 하나님이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다. 그의 의식속에 막연히 깃들고 있던 <기대>마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전형적인 인간 사반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때 더 고통을 못 참고 신음하며 애원하고 십자가에서 풀리기를 기대하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아니한가? 사반은 죽음을 쾌락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는 죽음을 고통과 마지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확실히 金東里의 人間勝利를 주장함이며, 이는 神學的인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갖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흉악한 강도가 예수 보다 죽음에서 超然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사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죽은 몸이었다. 막달라 마리아(애인이요 누이동생이었다)도 떠나고, 예수에게 걸었던 메시아의 기대도 철저히 사라지고, 정신적 支柱였던 하닷도 잃고 부하들도 잃었다. 자기 눈은 하나밖에 없는 애꾸눈이 되었으며 팔다리가 꺾였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만이 최후의 길로 直面해 있고 막다른 골목을 해결하는 열쇠였기에, 미련을 둘 아무런 것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므로 사반은 의연하고 곱게 죽음을 甘受한 것이다. 예수는 아다시피 人性과 神性を 共有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이듯이 十字架上的 예수는 너무나 인간적이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맡아 죽어가는 속죄양(贖罪羊) 예수의 壯嚴한 最後(臨終의 悲劇美)를 情으로써 안스럽게 강조하려는 것이라 본다. 그래

서 죽음에 직면하여 인간이 神的이고(사반), 神이 人間的으로(예수) 그 순간은 뒤바뀐 것이다.

사반의 죽음은 점진적이다. 그리고 무너도의 毛火처럼 죽음으로 끝나 버렸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사반이 체포되게 된 근본 경위는 하닷을 구하려다가 함정에 빠진 것인데, 이 發想은 저 人口에 膾炙하는 三國誌演義 소설 중 劉備가 義弟 關羽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江東을 치러가다가 白帝城에서 最後를 맞는 것과 비슷하다. 이 소설은 가운데 부분(第4章 실바아와 마리아의 중간에서 5章 나비티야의 熱風과 다음 章 일부까지)은 女子를 찾으려는 사반과 그 부하의 武勇譚이며 신과 인간 관계의 哲學性보다 通俗性이 강한 부분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서 作用하는 細作 아굴라의 存在를 잊어서는 안된다. 外國使臣으로 와서 사반을 파멸시키는 일을 만든 아굴라는 전쟁도 일으키게 하는데, 神과 國民의 문제에서 떠난 가장 自己만 생각하는 小人役을 한다. 하닷구출의 실패와, 전쟁 이야기와, 아굴라의 暗躍, 그리고 사반에 대한 團師 하닷의 위치는 劉備에 대한 軍師 諸葛亮의 위치와 같다는 점 等은 三國誌演義와 一脈相通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반과 예수를 線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반은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는 죽음이 후 기독교의 전파로 再生된다. 옥이와 만적과 예수는 다른 線이 돌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救援의 양상

사람은 죽음 하나씩을 所有한다. 그러나 그 양상은 각기 그 사람의 능력과 생활과 환경과 주장에 따라서 여러가지이다.

(가) 이 죽음을 자기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死後 信仰의인 再生과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 편과

(나)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 자세가 몇몇하여 삶을 값지게 자기대로 정리하는 편과

(다) 죽음의 극한상황에서나 공포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편이 있고

(라) 살아가는 데서 받는 고통이나 죽음만한 난관에서 살아서 해방하려는 편 등 4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인물들을 들어보자.

(가) 자기 몫의 죽음을 받고 그 신앙(思想)의 힘을 남긴 사람. (死後가 있다)

무녀도의 <옥이>, 등신불의 <만적>, 사반의 십자가의 <예수><요한>

(나) 자기 몫의 죽음을 生의 정리로서 몇몇이 받아들이는 사람(죽은 순간이 값지다)

무녀도의 <모화>, 사반의 십자가의 <사반><하딿>

(다) 죽음의 공포와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

무녀도의 <낭이>, 등신불의 <나>, 사반의 십자가의 <사반 부하들인 글로바, 스가략, 갈리오, 도마>와 <유다>

(라) 살아가며 죽음같은 고통에서 해방하는 사람

사반의 십자가의 <막달라 마리아>

金東里小說의 主人公들은 잘 죽는다고 한다. 문제는 어떻게 죽으며 왜 죽느냐? 그리고 그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문제이다.

위의 (가)(나)의 인물은 죽음을 당한 편이며, (다)(라)는 죽음에 이르지 못한 편으로 나뉘게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나)의 경우는 죽음을 이기거나 몇몇이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라)처럼 죽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라)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고뇌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는 자”로 볼 수 있다. 예수가 받아들여 心的인 平安을 주어서 죽지 않고도 變化, 이른바 重生(거듭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계열에서 特異하게도 (라)마리아는 救援의 隊列에 參加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미리 맛보았고, 그 이후는 예수나 사반과 같은 意味를 所有하는 마리아(비록 살았어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짜 죽음”보다 “미리 죽음”(정신적인 고뇌……)이 컸기에 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공포와 전율은 없다고 보아서 구원이라고 特別히 말하는 것이다.

(㉔)의 人物도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들 나름으로 對處한다. 凡人에게는 죽음이란 당장 피하고 싶은 運命이기에 살아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個中에는 죽을 여건이 안되어서 우연히 살아남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을 안다는 것과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니, 죽음을 경험한다는 단계를 通過하지 않으면 救援을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㉔)의 人物은 구원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죽음을 肯定하고, 絶望과 虛無를 극복하려고 하며 죽음 앞에서 生의 意義와 本質을 찾으려는 人物이 (㉔)人物群에 보이는데 이들은 머잖아 구원의 대상은 될 것이다. 결국 金東里 小説의 人物들은 죽음앞에서 가장 인간다워진다. 그러므로 작자는 救援의 有無에 관계없이 作中人物을 다 같이 平等하게 사랑한다. 歴史와 世上에서 비록 가룟유다를 비난하여도 사반의 十字架의 末尾는 가룟유다가 장식하고 있음을 독자는 注目해야 할 것이다.

7. 意義上的 要素

25년간(24세에 지은 巫女圖 1936, 43세에 지은 사반의 十字架 1957, 49세에 지은 等身佛 1961)에 걸쳐 쓴 세 작품에 서로 脈絡이 닿은 要素를 意識上的 要素라 하여 찾아보면 몇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로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人物性格의 相似點이다. 세 작품의 중요 인물을 線으로 그렸을 때 특히 두드러지게 死後 再生이 나타나는 옥이~만적~예수 <(가)죽음>과, 單線으로 나타나는 모화~사반이 그 증거이다. 그런데 하닷같은 인물은, 하닷딸인 女性 실바아까지도 또한, 모화와 相應한다. “하닷은 모화의 發展像이다”¹⁵⁾ 이 인물관계에서는 각 宗教의 判연한 대립적인 성격이 無視되었음은 물론이다. 죽음 안에 각 宗教를 묶어넣은 것이니 神과 人間의 만나는 中間點이 죽음이라고 보아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죽음에 공포를 느껴왔다는 작자의 告白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들 人物이 죽은 시기가 봄, 3月임을 注目한다. 그리고 3日이라는 것, 3字라는 것도 무심히 볼 수 없다.

옥이는 가을을 지나 겨울을 지나 이듬해 봄에 3계절만에 죽었다. 죽기 3일전에 찾아온 현 목사를 통하여 교회 서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받는다. 낭이가 병이 완전히 든 것은 옥이가 떠난지 3년 후였다. 等身佛의 만적은 겨울(3個月間) 동안 火食을 끊고 목욕 재계하였으며 이

15) 金東里는 前掲文에서 샤마니즘의 변형으로서의 사반의 십자가의 人物性格을 말한다.

“가령 사반의 十字架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는 그 작품에서 지금까지 유럽사람들이 찾아온 기독교나 기독교의 신을 그리지는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보다도 사반이 주인공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여주인공 실바나 실바의 아버지요 占星家인 하닷노인은 우리의 샤마니즘의 변형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거야.”

한편 李炯基도 前掲文 (p.404)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듬해 봄 3월 1일에 大供養하였는데, 그 몸이 불타는 시간이 午時와 未時와 申時의 3時辰(지금의 6시간)이었다. 그후 영점을 입은 신자들이 3년간 계속 새전(헌금)하였다.

예수는 <니산>날 초아흐레(3월 스무아흐레) 일요일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入城한다. 영광과 죽음이 함께 있는 行次인 것이다.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유월절 첫날 예수는 3명의 강도와 함께 죽고 3사람의 여자가 3일 만에 예수무덤을 찾아갔더니 그는 부활하였던 것이다. 부활절을 잡는 起點은 冬至(그로부터 105일)이다. 낮이 길어지는 날부터 부활절을 계산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春三月이다. 육이와 만적과 예수같은 (가)死後再生인물이다 三月, 봄에 죽는다는 것은 復活的인 意味인 것이다. 이것 또한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金東里 意識의 表出이라고 본다. 또 이 3은 金東里의 東洋思想의 發露라고 본다. “三”은 東洋에서 最高의 吉數이며, 安定과 平和와 宇宙包括과 生命을 뜻한다. 天地人, 上中下, 前今後生 等の 三分思想이나 出生神의 三神 할머니 신앙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三은 金東里와 밀착된 수라고 하겠다.

세째로 극단으로 對立하는 두 인물사이에 中間子, 中間人物이 있다는 것이다.

결코 자기를 양보는 하지 아니하지만 상대를 알고 끌어들이려는 中間役을 두고 있으니 모화와 육이 사이에는 낭이가 있고, 사반과 예수 사이에는 도마같은 양쪽 부하 노릇을 하는 인물이 있다. 막달라마리아는 처음에 中間役을 꾸준히 해왔으나(부하사이에, 유대와 로마군사이에, 사반과 포로된 실바아 사이에) 절망이후 예수를 만난 후에는 中間役을 포기하였다. 이 마리아의 균형이 기울 때 사반의 비극이 온다. 등신불에서 만적의 죽음을 촉진하는 人物(어머니와 사신과 퀴프스님)은 있었으나, 죽음을 말리거나 그의 처사를 비난하는 對立人物은 없다. 대립이 있다면 나와 만적(등신불)이 1200년을 사이에 두고 人性과 佛性의 갈등을 겪는데 이때 원혜대사가 三次에 걸쳐서(실은 그의 제자와 책이 두번 나오지만)이해를 시켜주어 갈등이 해소된다. 나와 모화 사건 사이에는 그림 巫女圖가 있고, 나(金東里)와 사반 사건 사이에는 생략되었지만 聖經이 있다. 그리고 작자와 독자 사이에 “나”가 있음을 안다. 對立과 이를 극복하고 中和시키려는 中間子를 두는 意味는 극히 安定的 構圖를 여룬다. 대개 3角構圖(3사람의 性格)가 된다. “第三 휴머니즘은 자본주의의 세계의 모순과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일방, 마르크시즘 체계의 획일적 공식적 메카니즘을 지양하는 데서 새로운 고차원의 제 3 세계관을 확립하는데에 그 志向이 있다¹⁶⁾. 그의 주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東洋과 西洋을 묶는 그 세째번 새사상—이것이 이른바 金東里式 宗教로 나타난 윗 작품의 3종교(불교, 기독교, 샤아머니즘)인 것이다. 兩쪽 對立을 묶으려는 의식은 그의 哲學과 人品의 發露이라고 본다.

네째로 倫理面에서 善因善果思想과 勸善懲惡과 약은 처세술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것이 아

16) 金東里 本格文學과 第三世界觀의 展望(李秀和: 第三휴우머니즘 구현의 완벽한 作品, 三中堂文庫 사반의 십자가의 작품해설에서 再引)

닌가 한다.

斷指圖命을 하는 人物이 소설 등신불에 나오는 學徒兵 탈주병인 “나”이다. 소설 마지막에 “왜 손가락을 들어 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겐지, 이제 그만 손을 내리어도 좋다는 겐지 뒷말이 없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나는 자른 바른 손 食指를 들라는 원혜대사의 말을 정말 몰랐을까?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만적과 살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사실은 깨물은) 나와 그 엄청난 차이를 원혜대사는 無言으로 묻고 있던만, 대학생인 나는 미련스럽게도 그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좀더 “나”가 뼈를 깎는 悔悟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나”를 木石然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같은 斷指圖命으로 <까치소리>에 나오는 나(봉수)를 들 수 있는데, 순전히 애인을 만나려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러한 비겁한 짓을 하였고, 그는 無能하게도 정작 殺意를 느껴야 할 마음약한 정순이나, 거짓전사통지서를 주며 정순이를 가로채간 친구이며 원수인 상호는 제쳐두고, 처음은 불쌍한 어머니에게 살의를 느끼고, 다음은 엉뚱하게도 그를 위로해주려는 마음씨 고운 어린 소녀인 상호동생 영숙이를 능욕하고 죽이는 것이니, 이 봉수의 태도는 정말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死刑囚로 간단히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적은 투자(斷指)로 큰 수확(生命)을 얻은 약은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충격적으로 필자가 느끼는 것은 이 장편 소설 맨끝이 사반도 아니요 예수도 아닌 가룟유다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반의 부하이며 예수의 12 제자 중의 하나였는데도 태도는 어떠했던가.

예 21 그리하여 그(사반)의 시체는 예수의 부활로 범석이 일어난 지도 이틀이나 더 지난 뒤에 그의 단원들에 의하여 다른 동굴로 남몰래 옮겨지게 되었다. 이 일에도 유다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이 있는 뒤부터 예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웬까닭인지 경멸같은 것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때 받은 은 삼십 세겔 이외에도 이미 상당한 재산이 저축되어 있었으므로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자기의 일생은 그럭저럭 편안히 지낼 만하다고 자기 자신을 혼자서 위로하고 있었다(본 소설 大尾)

옛날 團長이요 首領인 사반의 시체 처리에 무관심하고, 예수 팔아 번 돈으로 편히 살 궁리를 하는 유다는 모든 사람이 왜 자기를 경멸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한다. 民族主義者 사반의 부하이며 世界主義者 예수의 제자라면 그 倫理面과 行動面 等에서 남보다 뛰어나련만, 이 소설 大尾와 같은 유다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란 말인가? 두 스승을 팔고나서 고작 주머니돈을 쉰다는 점은 어찌볼 것인가? 왜 유다는 성경대로 비참하게 천벌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도록 이 소설은 人物設定을 하였는가?

등신불의 “나”와 까치소리의 “나”와 사반의 십자가의 “유다”를 볼 때 모두 자기를 亡失한

미련한 자들인데도 加해져야 할 倫理的인 징벌이 弱化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人間은 善人만이 있는 것이 아니요 惡人도 있음으로써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인간이 살아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잘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 세상의 不公平과 不平等과 矛盾과 各人各색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現實이다. 미우나고우나 이런 모든 인간을 金東里는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기 자기 죽음 하나씩을 갖고 있다고 하였고 그 죽음의 처리는 전혀 자기 자유로 처리되므로 남이 曰可曰否할 수 없는 禁觸의 재산인 것이다. 곧 죽음 앞에서 악인도 선인도 平等하기에 그의 소설에서는 유다도 인간대접을 받는다. 아니 逆說的으로 더욱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진짜 죽음이 다다르기 전에 그 生의 의미를 잃은 자들이며, 神의 구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인물이므로 그렇게 放任한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억울하게 죽고 죄없이 희생당하는 人物도 있으니, 6.25 피난길에 사랑하며 기르던 개가 짊어서 숨어있던 주인이 발각되어 죽게된 이야기(허무한 이야기)며, 위에서 본 영숙이 죽은 이야기(까치소리)등은 常識論이나 倫理로는 간단히 해석하기 힘들다. 이것 또한 人生의 不完全성과 虛無성과 多樣性속에 포함하여 일단 묶어 해석하고자 한다.

Ⅲ. 結 論

金東里 小說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사랑과 운명 문제, 민족과 사회 문제, 그리고 신과 인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되고, 다시 세째계열을 나누면 샤머니즘 계열과 불교계열과 기독교 계열로 된다. 이중 종교와 철학사상이 강한 종교계열 작품을 들어 김 동리 소설의 특색을 죽음과 구원문제로 국한하여 고찰할 때 性格이 뚜렷한 문제작으로 칭할 수 있는 巫女圖와 等身佛과 사반의 十字架 등 3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東洋的이며 韓國的인 主題意識이 다들 강하게 나타난 작품들인데 이들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共通點을 찾는 方法을 썼으며 7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1. 소재와 작품전개를 보자. 죽음을 도입부에서 제시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거슬러서 설명하는 回歸式手法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죽을 운명이므로 죽음자체가 終着點이 아니라 그 죽음너머의 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히 죽음을 미리 공개해 버린 것이다. 소설 巫女圖는 죽음의 증거인 그림 巫女圖에서 시작하고, 소설 等身佛은 죽은 증거인 부처 等身佛에서 시작하며, 사반의 十字架는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은 두 강도 중 하나인 사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2. “나”의 意味는 어떠한 것인가? 巫女圖와 佛身佛에서 진정한 이야기 進行者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사반의 십자가에는 “나”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데, <독자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소설 내용(이야기 내용과 죽음)이 소설 계기(이야기 거리와 계기→이야기를 해 준 사람→

나)를 만나서 소설 완성(김 동리→독자)이 되는 순서이다. 다른 소설에 없는 소설 계기의 “나”가 들어 있어서 특이한 전달과정을 보인다. 소설 主人公으로 죽지도 않은 “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작자가 너무나 說教하는 것같은 죽음과 구원 문제로 독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中和시키려고 介入시킨 意味를 갖는다.

3. 세 작품 다 배경과 분위기는 正常的의 現實과 떨어져 있어서 神秘, 怪奇, 恐怖, 異國의이며 他鄉의인 거리감과 정취를 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미있음직한 현실 요소들도 거의 없이 분위기가 무거운 것은 죽음이라는 심각한 哲學的 命題에 直面해 있기 때문이다.

4. 人物性格도 위에서 말한 분위기와 배경같이 처음부터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불행한 사람들로서 脫家庭, 半現實의인 性格을 가진다. 이처럼 “떠나온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처음부터 보통사람보다 죽음에 가깝게 출발한다. 죽음과 가정이 결부된 것은 韓國的이며 作家의 東洋的인 意識의 發露이다. 곧 가정을 떠나면 죽음에 가깝다는 의식을 뜻한다. 그리고 세 작품의 人物은 서로 대응하는데 예컨대 <하닷~모화, 실비아~낭이>가 그것이다.

5. 죽음의 과정은 어떠한가? 主人公들은 점진적 죽음을 吟味하며 거역없이 受容한다. 자기가 가진 唯一한 所有物인 “죽음”을 最善으로 對하기에 어떤 人物은 죽음을 넘어(克服) 새로운 신앙적인 再生으로 발전하고(옥이, 만적, 예수), 어떤 인물은 자기 所信과 思想을 굽히지 않고 삶을 값지게 정리하며 떳떳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모화, 사반). 巫女圖를 巫歌順으로 11 단락을 나누고, 佛身佛을 시간순으로 12단락으로 나누고, 사반의 十字架는 예수의 사반의 만남을 3 단락으로 나눈 결과가 위와 같다. 세째 인물중에는 죽음의 공포와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낭이, 등신불의 “나”, 사반의 부하들, 유다)도 있고, 끝으로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해방하는 사람(막달라마리아)도 들 수 있다. 자기 죽음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죽음에서 人間究竟을 탐구한 결과이므로 자기 죽음에서 의미를 찾을 때 救援으로 보며, 죽음이 덧없는 절망으로 끝날 때 虛無로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죽음앞에서 生의 意義와 本質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째 人物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끝으로 作家 意識上의 要素를 보면, 人物 性格이 서로 相似한데 이는 神과 人間이 만나는 中間點이 죽음이라고 보아서 그러할 것이다. 다음에 들 수 있는 요소로 3字와 春三月의 復活, 再生象徴이다. 또한 東洋의 安定과 平和와 生産의 吉數인 3字意識도 있다. 세째로 兩極의 對立 사이에 中間者를 設定하는 三角構圖를 쓰고 있으며 네째로 斷指圖命하는 人物을 옹호하고, 유다같은 惡人을 살려두는 등 倫理에 反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죽음앞에 人間의 善惡은 어쩔 수 없다는 不條理와 不完全性과 虛無를 表出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끝으로 三國誌演義의 人物과 事件設定, 그리고 樹木에 비유되는 意識 등이 드러났다.

金東里小說의 人物은 죽음앞에 누구나 처음부터 서 있어서 남보다 죽음에 쉽게 도달하도록

된 것으로 죽음을 쉼표(, 連續의 한 過程)로 보는 무리와 마침표(. 終着點)로 보는 무리와 말
없음표(……죽음에 아직 도달 못한 것)로 보는 무리로 분류되고, 어느 것이나 成功한 人物이
면 救援을 받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論文은 筆者가 作業하고 있는 韓國說話의 構造分析 方法을 現代文學 作品에 적용해본 試
驗論文의 性格을 가진다.